

“고대도안항(古代島安港)과 “Gan-keang”의 상관관계연구

-“원산도 개갱 정박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오현기(대구동일교회 목사, Dr. theol.)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로드 애머스트호의 정박지, “고대도 안항 (古代島 安港)”

1. “고대도 안항”의 존재여부
2. 고대도 안항”: 선참(船站)과 세선(稅船)의 점검소(點檢所)
3. “고대도 안항” 정박 여부
4. “고대도 안항” 정박 기간
5. “고대도의 문정관”이란 표현

III. “Gan-keang”이란 표기문제

1. “Gan-keang”은 “a safe anchorage (안전한 항구)”이다.
2. “Gan-keang”은 “고대도 안항”이다.
3. “Gan-keang”은 “Majoribanks Harbour”이다.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¹가 탐승했던 “로드 애머스트호(Lord Amherst)”의 “고대도 안항”(古代島安港)² 정박에 관한 역사적 사

¹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사역에 대하여는 오현기, 『굿모닝 귀츨라프』, (성남: 북코리아, 2014)를 참조하라.

² 고대도는 조선 측 공식문서들 외에 조선지도들인 『해동지도(海東地圖)』의 <대동총도(大東總圖)>와 『여지도(輿地圖)』, 『광여도』에는 高代島로, 『비변사방안지도』의 호서지도편 <호서전도>에서는 高臺島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고대도(古台島), 『1872년 지방지도』 충청도편 <보령부지도>와 『동국여도(東國輿圖)』의 <삼남해방도>에서 古代島로, 서로 다르게 기록됐지만, 이는 모두 고대도(古代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조선海道사료를 참고하면, 해동지도(海東地圖)의 대동총도(大東總圖); 1750년 초 제작)에는 고대도 곁을 지나는 세곡선의 해로가 정확히 그려져 있다. 또 동국여도(東國輿圖: 1800년-1820제작)에도 세곡선의 항로를 더 자세히 보여 주고 있는데, 원산도(元山島)나 삽시도(插矢島)를

실을 고증하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로드 애머스트호의 “원산도 개갱 정박설”을 비판하고자 한다.³ 필자는 그간 발굴된 국내외 문헌자료와 국내외 해도사료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로드 애머스트호의 “고대도 안항”정박을 주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고에서는 Gan-keang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그간의 발전된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일각에서 “원산도 개갱 정박설”을 주장하며, 귀츨라프 선교사의 한국 선교의 본격적 사역지이며, 본격적인 조선과 서양문화화 간의 교류의 무대가 되었던 고대도를 부인하는 주장이 나와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원산도 정박설의 오해와 혼란을 바로 잡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하고자 한다.

“원산도 개갱 정박설”은 주장은 로드 애머스트호가 정박한 항구, “Gan-keang”이라는 표기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로드 애머스트호에 대 칼 귀츨라프와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해책임자이자 동인도회사 상무관 린지(Hugh Hamilton Lindsay, 1802-1881)가 “Gan-keang”이라고 기록했던 것을 “원산도 개갱 정박”을 원산도 개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자의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고는 Gan-keang 대한 표기와 의미를 정확히 고찰함으로써, Gan-keang이 어떤 항구를 지칭한 것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도 안항”이 “Gan-keang”임을 논증을 하고자 한다. 또한 “고대도 안항”이 한국 최초의 정식 통상 요구선이었던 로드 애머스트호가 조선에 최장기간 정박한 항구일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본격적 선교가 이루어진 복음 전래지임을 명확히 하고, 본격적 문화 교류를 시도했던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고자 한다.

II. 로드 애머스트호의 정박지, “고대도 안항 (古代島 安港)”

1. “고대도 안항”의 존재여부

“고대도 안항”이란 이름은 『순조신록』, 순조 32년 7월 21일 자의 자문(咨文: 조선시대 중국과의 공식적 외교문서)에 “본 년 6월 26일(양력 7. 23) 유시(酉時)(오후 5-7시) 경에 이양선(異樣船) 1척이 본주(本州) 고대도 (古代島)의 안항(安港)에 정박하였는데”라고 나타난다. 그리고 『일성록』 순조 32년 7월 11월과 14일의 각 각의 기록에서 “고대도 안항”에 끌어들여 정박했다(古代島安港引泊)라고 한다. 이를 참고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지명이 아니고 지어낸 이름”이라거나, “지어낸 가상의 지명”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순조신록』에 언급된

통해 오는 배가 고대도 앞에서 만나고 하나로 합해져 고대도와 장고도 사이를 오가는 뱃길이 있다. 이 지도는 고대도가 해상 교통에 중요한 섬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동국여도(東國輿圖), 삼남해방도(三南海防圖) (1800년-1822년 제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1600년대 초반부터 남부 지방의 조곡미를 운반하던 조운선의 중간 기착지였고, 남해안 지방에서 연평도로 조기잡이 가던 선박의 물품 보급과 보충을 위한 기항지로서 상설시장인 파시(波市)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또한 원양어선(중선)의 기지로 해산물 거래가 많았고, 중국 배가 드나들 정도로 발전된 곳이었다. 고대도는 상업도 아울러 발달했다. 뱃사람들과 여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소를 갖추고 있었고, 또한 잡화상, 여구상, 음식점, 접객업 등이 발달했던 곳이다.(전영진, “고대도 민속의 특징”, 한국국어교육학회 편, 「새 국어 교육」, Vol. 52 (1996), 335.) 그래서 1759년의 인근 도서의 주민 현황을 보면, 고대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책으로 엮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175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고대도의 가구 수가 면적이 더 넓은 삼시도와 장고도의 가구 수를 합친 만큼이나 많았다.(전영진, “고대도 민속의 특징”, 337).

³ 대표적인 주장은 신호철, 『귀츨라프행진』, (서울: 양화진선교회, 2009)이다.

“자문”의 경우, “괴원(槐院, 승문원)으로 하여금 사실(事實)을 매거(枚擧: 하나 하나를 들어서 말함)하여, 자문(咨文)을 짓게 하였음으로 (撰出咨文), 형편에 따라 예부(禮部)에 들여보내야 하겠다”라는 말에도 드러나듯이,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한 외교문서임을 알 수 있다.⁴ 특히 『순조실록』 순조 32년 7월 21일 자에 나타나는 “자문(咨文)”이란 조선시대, 중국과 왕복하던 외교문서의 하나임을 고려하고, 조선과 청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본다면, 의도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은 거짓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선박이 다녀간 것을 대국(중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중국이 알고 책망하면 곤란하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 “자문을 찬출(撰出-시거나 문장을 지어내는 것)하여 보내자”고 한 것에 비롯되었다”⁵고 하며 자문에 무엇을 꾸며낸 내용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찬출자문(撰出咨文)”이란 ‘외교문서를 작성한다’라는 공식문서에 자주 보이는 관용적 표현이다.⁶ 실제로 이 자문을 작성하여 청(淸)나라 예부에 송부하였다. 이렇게 보내진 자문을 통해 선종성황제실록(宣宗成皇帝實錄)에 고대도의 존재가 이 자문에 근거하여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나라의 황제가 순조대왕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하사품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⁷. 이 사실을 기록한 조선의 기록인 『통문관지(通文館志)』 卷11, 紀年續編, 純宗 32年 壬辰 31쪽에도, 조선의 조정이 자문을 통하여 낱낱이 보고한 일에 대해 뒷날 청의 황제로부터 ‘법도(法度)를 잘 지켰고 대의(大義)를 길이 밝혔다고 칭찬을 받고 물품을 하사 받았다(賞賜)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나라의 왕조실록까지 고대도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안항”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고유명사인 지명으로만 나타나는데, 이 곳이 바로 고대도에 있는 항구, 안항이다.

2. “고대도 안항”: 선참(船站)과 세선(稅船)의 점검소(點檢所)

일각에서는 “원산도는 110년간 조운선을 점검하는 기지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고대도가 조운선 점검기지라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한다.⁸ 그 주장의 요지는 고대도가 선참과 점검소가 없음으로 고대도에 외국배가 장기 정박할 이유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항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도의 안항은 예로부터 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이다. 조선시대 지도에 나타나는 해로는 통해 귀츨라프 일행의 고대도 정박을 정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당시 해로에 따르면, 그들의 고대도 정박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조선 지도들의 해도들을 참고해 볼 때 애머스트호가 녹도와 불모도를 거친 후 비교적 현지 지리에 밝은 조선 항해사들을 태우고 “동북쪽”으로

⁴ “令槐院, 枚擧事實, 撰出咨文, 從便入送于 禮部”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

⁵ 신호철, “귀츨라프 선교지 원산도에 관한 연구”,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49.

⁶ “찬출자문(撰出咨文)”란 표현은 일성록에만 해도 178건 나오는 외교문서를 작성한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⁷ 하사품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망단(蟒緞), 섬단(閃緞), 비단(錦緞) 2 필, 소단(素緞) 4 필, 수자단(壽字緞) 24 필을 하사했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선종성황제실록』(宣宗成皇帝實錄), 卷之二百二十二 道光十二年 閏九月 二十九日,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586926&remap=gb>.

⁸ 신호철, “귀츨라프의 7월 25일 고대도와 원산도 정박론 비교”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9.

향했다.⁹ 그렇다면 당시 세곡선의 배 길을 그린 공식해로는 남쪽에서 올라와 고대도 근처를 반드시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도(古代島)에는 참(站)또는 선참(船站)이 설치되어 세선(稅船)의 점검소(點檢所)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¹⁰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의 등록류 문서들을 편찬한 사료집인 『각사등록(各司謄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대도(古代島)에는 참(站) 또는 선참(船站)이 설치되어 이미 세선(稅船)의 점검소(點檢所)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 순조(純祖) 23년(1823)의 기록에 보면, “홍주(洪州) 지역 고대도(古代島) 참(站)”¹¹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록은 순조대왕시대에 이미 고대도에 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비록 순조대왕 이후의 기록이긴 하지만, 고대도에 있는 참(站)은 당연히 선참(船站)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록이 『각사등록』 철종(哲宗) 12년(1861), 5월 초 7일,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에 남아 있다.¹² 동시에 이 선참은 세선의 점검소(點檢所)였다.¹³ 그리고 이 선참과 세선의 점검소가 있는 곳이 바로 “고대도 안항”이었다.

3. “고대도 안항” 정박 여부

조선사료들은 녹도를 거치고 불모도(동소도) 를 거친 로드 애머스트호는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는 다수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순조실록(純祖實錄)』에 보면, 공충감사(公忠監司) 홍희근(洪羲瑾)이 “7월 22일(음력 6월 25일) 홍주(洪州)의 고대도(古代島) 뒷바다(古代島後洋)에 와서 정박하였다”라고 장계를 올렸다. 또한 자문에는 “본 년 6월 26일(양력 7월 23일) 유시(酉時)(오후 5-7시) 경에 이양선(異樣船) 1척이 본주(本州) 고대도(古代島)의 안항(安港)에 정박하였다”고 한다.¹⁴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輶直指), 영길리 국표선기(英吉利國漂船記)에 고대도 전항(前港)¹⁵에 인박(引泊)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김경선은 1832년에 청나라에 동지사겸 사문사로 다녀온 인물로 로드 애머스트호에 대한 청나라 보고를 염두에 두어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⁹ H. Lindsay, Report of Proceedings on a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2. ed., (London: Fellowes, 1834), 224.

¹⁰ 고동환, 『한국전근대교통사』, (들녘: 서울, 2015), 184을 참고하라. 조운선단의 항로에 고대도가 언급되고 있다.

¹¹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 순조(純祖) 23년(1823), 9월 17일, 충청도 병영(忠淸道兵營), (<http://db.itkc.or.kr>).

¹²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수영계록(忠淸水營啓錄), 철종(哲宗) 12년(1861), 5월 초7일,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 (<http://db.itkc.or.kr>).

¹³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수영계록(忠淸水營啓錄), 고종(高宗) 2년(1865), 4월 27일,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 (<http://db.itkc.or.kr>).

¹⁴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

¹⁵ “古代島 前港”, 김경선(金景善), 연원직지(燕輶直指), 제1권 출강록(出疆錄) 「영길리국표선기(英吉利國漂船記)」, 순조 32년 11월 25일

기록에는 임진년(1832년) 7월에 영국 배가 홍주(洪州) 불모도(不毛島) 뒷바다에 표류해 오자, 고대도(古代島) 앞 항구(前港)에 끌어다 정박시켰고, 이를 두고 공충감사 홍희근은 그의 장계(狀啓)에서 “그 배를 경솔하게 먼저 고대도로 끌어다가 정박시킨 것도 경솔한 짓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에 담고 있다. 이는 고대도가 정박지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일도 경솔한 일이라는데, 원산도 같은 제 3의 장소로 로드 애머스트호를 또 옮긴다는 것은 당시 정황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 책에는 조선에서의 항로에 관한 귀츨라프 일행의 중요한 진술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고대도에 도착하기 전에 장산, 녹도, 동소도를 지나 왔다고 필담으로 진술했다.¹⁶

『일성록(日省錄)』¹⁷ 에도 영국배가 고대도에 표도(漂到), 소박(所泊), 도박(到泊), 유박(留泊), 인박(引泊)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표현을 쓰며 귀츨라프가 승선한 로드 애머스트호가 고대도에 정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¹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¹⁹ 에는 『비변사등록』, 순조 32년 1832년 7월 8일(음)에는 고대도에 끌어와 정박시킨 배의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자 글로 문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²¹ 에도 홍주 고대도에 끌어와 정박시킨 것²²과 고대도에 표류하여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²³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이 1800년대 초에 저술한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 격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논사류 1, 논사(論史) 서양 편²⁴에도 “순조 32년(1832)에도

¹⁶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輶直指)』, 제1권, 출강록(出疆錄), 임진년(1832, 순조 32) 11월 25일.

동소도(東小島)는 동쪽의 작은 섬이란 뜻으로 실제 불모도(不毛島)를 뜻한다. “東小島卽不毛島”(『일성록』, 순조 32년 7월 14일)

¹⁷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이 책은 1783년(정조 7)부터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왕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¹⁸ 『일성록』, 순조 32년 7월 6일; 순조 32년 7월 8일; 순조 32년 7월 9일; 순조 32년 7월 11일; 순조 32년 7월 12일; 순조 32년 7월 14일; 순조 32년 7월 16일; 순조 32년 7월 18일; 순조 32년 7월 18일; 순조 32년 7월 20일; 순조 32년 7월 21일; 순조 32년 7월 21일; 순조 32년 8월 7일; 순조 32년 8월 11일; 순조 32년 8월 13일; 순조 32년 8월 23일; 순조 32년 11월 30일.

¹⁹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은 조선 중·후기 국방과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논의하던 합좌기구(合坐機構) 비변사의 회의 내용과 관련 기록을 모은 등록이다.

²⁰ 『비변사등록』에는 영국배가 고대도에 인박(引泊)한 것(『비변사등록』, 순조 32년 1832년 7월 18일)과 이국선이 표도(漂到)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비변사등록』, 순조 32년 1832년 7월 21일).

²¹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文書)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²² 『승정원일기』, (탈초본 115책) 순조 32년 7월 9일 계축 26/33 기사 1832년 道光(淸/宣宗) 12년 “洪州地古代島引泊漂人, 言語難通, 以書問情”; 『승정원일기』(탈초본 115책) 순조 32년 7월 18일 임술 14/23 기사 1832년 道光(淸/宣宗) 12년에 “洪州地古代島引泊”

²³ 『승정원일기』, (탈초본 115책) 순조 32년 7월 21일 을축 15/18 기사 1832년 道光(淸/宣宗) 12년 에는 “卽見公忠道洪州地古代島漂到異國船問情譯官吳繼淳前後手本”이 있다.

²⁴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 후기의 학자인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이 1800년대 초에 저술한 우리나라 전통 백과사전이다.(<http://db.itkc.or.kr>).

외양선(外洋船)이 표류되어 호서(湖西) 홍주(洪州) 고대도(古代島)에 정박했는데, 스스로 대영국(大英國)의 배라 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외국과의 통교(通交)에 관한 사적 및 의절(儀節)등의 사실을 수록한 책인 『통문관지(通文館志)』²⁵ 에도 이양선 한 척이 고대도에 들어와 정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심지어 청나라 실록인 『선종성황제실록(宣宗成皇帝實錄)』에도 고대도 앞바다에 사입(駛入)²⁶ 이라 기록하여 영국상선이 고대도 앞 바다에 들어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모든 조선사료에서도 보듯이 녹도를 떠난 뒤 불모도(동소도)를 거쳐 정박한 곳은 고대도이며, 이 곳에서 장기간 정박하여 체류하다 남하하였다. 로드 애머스트호의 고대도 정박 이후의 충청연안의 다른 섬의 정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고대도 안항” 정박 기간

고대도의 정박기간과 관련해서 『일성록』 순조 32년 8월 7일의 기록에는 공충수우후(公忠水虞候) 김영수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수가 원산도에 머물고 있었던 때, 7월 22일(음력 6월 25일) 녹도(鹿島)에 있는 별장(別將)의 치보(馳報)에 이양선 한 척이 불모도 외양(不毛島外洋)에 정박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배로 바다로 나갔지만, 곧 큰 비바람이 일어나(風雨大作) 바람과 비에 막혀 이틀간 지체되어 고대도로 표류하여 도착한 것은 7월 25일(음력 6월 28일)이었다 한다. 노를 저어 전진하여 로드 애머스트호의 정박장소까지 갔을 때에는 그 배는 돛을 올리고 내양(內洋)을 향하여 닻을 내린 상태로 있었다 한다.²⁷ 이 기록에도 7월 25일(음력 6월 28일)에는 이미 고대도에 로드 애머스트호가 도착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같은 날 『일성록』의 기록에는 홍주목사 이민회가 7월 23일 밤(음력 6월 26일) 밤에 받아 읽은 수군우후 김영수의 감결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양선이 불모도에 와서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배를 타고 7월 25일(음력 6월 28일)에 고대도에 겨우 도착했지만, 이양선은 고대도에 이미 배를 정박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⁸ 이 기록들은 로드 애머스트호가 적어도 7월 23일(음

²⁵ 『통문관지(通文館志)』는 조선(朝鮮) 숙종(肅宗) 때, 김지남(金指南)이 지었으며, 정조(正祖) 때에 나라에서 간행(刊行)하고, 고종(高宗) 18년(1881)에 다시 중간(重刊)하였다. “異國船一隻來泊於公忠道洪州牧古代島稱以喆喇國人要以西洋布千里鏡等貨和買本國所產物件”(통문관지(通文館志), 卷11, 기년속편(紀年續編), 純宗 32年 31쪽).

²⁶ 선종성황제실록(宣宗成皇帝實錄) 卷之二百二十二 道光十二年 閏九月 二十九日 1번째기사 1832년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586926>

²⁷ “金瑩綬則渠時當風和留防於元山島六月二十五日鹿島別將馳報內異樣船一隻漂到於不毛島外洋云故渠乘船出海則風雨大作漂到古代島乃爲風雨所阻兩日留滯二十八日搖櫓前進彼船所泊處則彼船舉帆向內洋下碇故渠乘船隨泊”(『일성록』, 순조 32년 8월 7일).

²⁸ “帥請議處又啓言洪州牧使李敏會公忠水虞候金瑩綬等原情以爲李敏會則渠於六月二十六日夜得見水虞候甘結有異樣船來泊於不毛島云故乘船馳往二十八日纔到古代島則異樣船先已到泊矣今此引泊云實是未曉而滯留九日與問情官水虞候金瑩綬同問情而及聞道啓論罷之報仍爲還邑矣旋聞戴罪舉行之命渠又與京譯官 吳繼淳偕到島中至”

력 6월 26일)에는 불모도에 도착해 있었고, 7월 25일(음력 6월 28일)에는 이미 고대도에 정박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정관인 역관 오계순(吳繼淳)의 고대도 정박 기간을 보고할 때, “문정역관 (오계순)이 8월 4일 (음력 7월 9일) 한양에서 출발하여, 8월 8일(음력 7월 13일) 오후 5시경에 “고대도 표류인(古代島漂人)”의 선박이 있는 곳에 겨우 도착하여, 8월 9일 (음력 7월 14일) 수군우후와 홍주 목사와 함께 필담으로 문정하였다”고 한다.²⁹ 이 또한 로드 애머스트호가 적어도 8월 9일 (음력 7월 14일)까지는 고대도에 머물러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비교 할 수 있는 고대도 도착에 대한 서양 사료는 귀츨라프와 린지의 글인데, 7월 25일에 정오를 조금 지나 정박했던 불모도 앞바다를 떠나 고대도에 당일 도착 했음을 알리고 있다.³⁰ 실제로 귀츨라프 일행은 자신들의 정박지를 언급할 때, 녹도와 고대도 사이에 동소도(불모도)를 언급하고 있다. 동소도가 곧 불모도이다(東小島卽不毛島).³¹

귀츨라프는 7월 24일 조선 고관이 보낸 등노(Teng-no)³²을 포함한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그들이 정박해 있는 곳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등노는 애머스트호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³³ 자신들이 과거 정박했던 섬이 녹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³⁴ 귀츨라프 일행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7월 25일(음력 6월 28일) 그들이 머문 임시 정박지(불모도)로부터 조선인들이 제안한 “안전한 항구”로 출발해, 녹도로 부터 7마일 거리에 놓여있는 섬들을 잇달아 통과 했다. 그리고 깊은 만 혹은 많은 섬들 사이의 통로를 향하여 북동쪽(N.E.)으로 운행했다.

마침내 당일 도착한 “Gan-keang”이라고 불리는 곳은 조선인들로부터 “a safe anchorage”³⁵, 또는 “ein sicherter Ankerplatz”³⁶로 소개 받은 곳이다. 즉 “안전한 항구”, 안항

(『일성록』, 순조 32년 8월 7일).

²⁹“問情譯官手本卑職於本月初九日下直離發十三日酉時僅到古代島漂人所住船近處而十四日與水虞候地方官以書問情”(『일성록』, 순조 32년 7월 18일).

³⁰ C. Gutzlaff, *Journal*, 1834, 330; H. Lindsay, *Report*, 224.

³¹ 『일성록』, 순조 32년 7월 14일.

³² Teng-no는 모리슨의 중국어-영어 사전(Macao: 1819)를 참조할 때 발음이 등노일 가능성이 높다.

³³ K. Gutzlaff, *Aufenthalt*, 249.

³⁴ H. Lindsay, *Report*, 224.

³⁵ C. Gutzlaff, *Journal*, 329.

³⁶ K. Gutzlaff, *Aufenthalt*, 249.

(安港)이다. 린지도 7월 25일 위험한 정박지(불모도)를 출발해 당일에 소개 받은 목적지, “Gan-keang”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³⁷

7월 25일 (음력 6월 28일)에 고대도에 도착했다는 것과 시기가 다른 자료도 존재한다. 고대도 뒷바다 나타난 것이 7월 22일(음력 6월 25일) 고대도 정박을 7월 23일 (음력 6월 26일) 유시(酉時, 오후 5~7시)라는 기록이 그것이다.³⁸ 그러나 서양 사료와 다른 조선 사료를 종합할 때 7월 25일이 더 타당하다.

에머스트호의 여정에 관해 자료들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부터 종합하여 추측해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외연도 근처에 도착(7월 21일)했고, 녹도 정박(7월 21~23일)을 거쳐 불모도(7월 23~25일 정오)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현지 조선인들의 권유에 따라 고대도에(7월 25일 오후)에 도착하였다. 등노를 태운 배가 7월 24일에 왔다면, 귀츨라프 일행이 불모도에 정박했을 때가 맞을 것이다. 외연도, 녹도, 불모도의 순서로³⁹ 에머스트호가 자의로 탐사했다. 불모도에서 고대도까지는 조선 항해사들이 탐승하여-비록 고대도 까지 뱃길을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지만- “Gan-keang”으로 바닷길을 이끌었다.⁴⁰

“원산도 개갱 정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월 24일 (음력 6월 27일)에 고대도에 도착하여, 바로 다음날 “Gan-keang”인 “원산도 개갱”으로 이동했다 주장한다.⁴¹ 이 모든 것이 “Gan-keang”의 발음상 유사성을 원산도의 개갱에서 찾아 보니 생기는 필연적 오류이다. 일각에서는 “Gan-keang 지명은 원산도에 실존하는 개갱 지명과 일치한다”고 한다.⁴² 아울러 “Gan-keang의 영문 지명 첫 발음 ‘Ga’와 두 번째 발음 ‘ke’도 개갱의 지명과 부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산

³⁷ C. Gutzlaff, *Journal*, 330; H. Lindsay, *Report*, 224.

³⁸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년), 7월 21일

³⁹ 『일성록』, 1832년 7월 8일(음력).

⁴⁰ C. Gutzlaff, *Journal*, 330.

⁴¹ 신호철은 주장하길, ‘7월 24일에 고대도의 모란여와 선바위 사이에 있는 목안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수군우후가 파견한 Teng no와 귀츨라프 일행의 첫 면담 장소가 되었다고 추정 했으며, 7월 25일에는 고대도(목안)에서 항해하여 원산도(개갱과 점촌사이의 만) 개갱 앞바다에 정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신호철, “귀츨라프의 7월 25일 고대도와 원산도 정박론 비교”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9.

신호철, “귀츨라프의 1832년 7월 원산도 정박에 관한 연구”,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3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551.

⁴² 신호철, 『귀츨라프행전』, 343.

도 개갱의 지명과 연결시킨다.⁴³ 또한 같은 관점에서 “원산도 개갱 정박설”을 주장하며, “실제적으로 고대도 안에 Gan-keang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거나, 유사한 지명이 있거나, 묘사된 지형적 입지 조건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라며, 고대도에는 Gan-keang이라는 지명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⁴⁴ 이러한 주장과 논리라면, “Gan-keang”이라는 표기가 원천적으로 원산도 개갱을 지칭하는 발음이 아닐 경우, 그간 주장된 “원산도 개갱설”은 쉽게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로드 애머스트호는 충청해안에서 제주도 연안으로 퇴거하기까지 “Gan-keang”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귀츨라프와 린지의 기록에도 ‘외연도, 녹도를 거쳐 “Gan-keang”에 도착했다’라고만 기록한다. 로드 애머스트호가 “Gan-keang”을 지나 직접 내륙이 있는 동쪽으로 더 진행한 문헌상의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Gan-keang” 충청연안의 탐사에서 마지막 정박 항구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로드 애머스트호의 승무원들이 인근 도서를 탐사를 할 때에는 모선은 원래의 항구 “Gan-keang”에 정박 해 두고 급수선인 “긴 보트(long-boat)”를 사용하여 하여 탐사했다.⁴⁵ 특히 천수만과 내륙 창리까지 방문하여 전도책자를 전달할 때에도 귀츨라프 일행은 이 급수선 위에서 잠을 자고 새벽 6시경 모선으로 복귀하기도 했다.⁴⁶ “Gan-keang”까지 조선의 항해사들에 의해 이끌려 와서 정박 했다면, 또한 쉽사리 자의로 떠난 항구로 옮기는 것은 안전상과 보안상의 문제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의 관리들이 허락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8월 7일(음력 7월 12일) 서산 간월도 앞 바다로부터 태안의 주사창리앞 포구를 방문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는 “고대도 문정관”이 이 일로 귀츨라프 일행에게 이 사실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이 날 까지는 확실히 고대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이며⁴⁷ 8월 11일 자 일기에도 “Gan-keang”에 관련된 모든 관리와 평민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다⁴⁸라는 말을 근거 할 때, 로드 애머스트호의 장기 정박지이자, 본격적 선교지는 바로 충청해안의 마지막 정박지인 “Gan-keang”이다.

그렇다면 고대도를 떠나간 날짜는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기록은 순조실록 순조 32년 7월

⁴³ 신호철, “귀츨라프의 1832년 7월 원산도 정박에 관한 연구”,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3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551.

⁴⁴ 신호철, 『귀츨라프행전』, 127.

⁴⁵ H. Lindsay, *Report*, 227.

⁴⁶ H. Lindsay, *Report*, 244;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⁴⁷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 (음력).

⁴⁸ C. Gutzlaff, *Journal*, 355.

21일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17일 유시(西時)에 이르러 조수(潮水)가 물러가기 시작하자 저들이 일제히 떠들면서 우리 배와 매 놓은 밧줄을 잘라 버린 뒤에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서남쪽을 향하여 곧장 가버려 황급히 쫓아갔으나 저들 배는 빠르고 우리 배는 느리어 추급(追及)하지 못하고 문서와 예물은 결국 돌려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⁴⁹

이 기록을 볼 때 로드 애머스트호는 8월 12일(음력 7월 17일)에 고대도를 떠났으며, 이 기록은 린지의 기록과도 일치한다.⁵⁰ 또한 출항일자에 대한 귀츨라프의 “We left this place”라 표현은 앞 선 문장들 중에 “Gan Keang harbour”를 지칭함으로, 이곳이 로드 애머스트호의 충청해안에서의 마지막 정박지가 분명하다.⁵¹ 로드 애머스트호는 출항 후 서남쪽⁵² 또는 남쪽⁵³으로 향하여 8월 17일에 제주도 근처에 다다랐다.⁵⁴

5. “고대도의 문정관”이란 표현

귀츨라프 일행이 고대도에 정박하여 보름 넘게 있으면서 조선의 조정에 통상을 청원 했을 때, 귀츨라프 일행과 조선의 고관 사이에 여러 필담이 서로 오고 갔다. 이 책임을 맡아 문정하던 문정관을 “고대도의 문정관”이라 지칭한다. 로드 애머스트의 충청도 정박사건은 고대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⁵⁵

⁴⁹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일성록』 순조 32년 8월 7일 (음력).

⁵⁰ 귀츨라프의 영문과 독문 항해기에는 기록이 불명확하지만, H. Lindsay, *Report*, 8월 12일자 기록에는 로드 애머스트호의 출항을 일을 명확히 하고 있다. (H. Lindsay, *Report*, 257).

⁵¹ H. Lindsay, *Report*, 294. 이 책의 후반부에는 귀츨라프가 쓴 글이 있다.

⁵²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⁵³ H. Lindsay, *Report*, 259.

⁵⁴ H. Lindsay, *Report*, 259.

⁵⁵ “또 7월 12일에 모양이 이상한 작은 배 한 척이 서산(瑞山)의 간월도(看月島) 앞 바다로부터 태안(泰安)의 주사창리(舟師倉里) 앞 포구(浦口)에 와서 이 마을 백성들을 향하여 지껄이듯 말을 하면서 물가에 책자(冊子)를 던지고는 바로 배를 돌려 가버렸는데, 던진 책자는 도합 4권 중에서 2권은 갑(匣)까지 합하여 각각 7장이고 또 한 권은 갑까지 합하여 12장이었으며 또 한 권은 갑도 없이 겨우 4장뿐이었다 하기에, 고대도(古代島)의 문정관(問情官)이 이 일로 저들 배에 다시 물으니, 답하기를, ‘금월 12일 묘시(卯時)에 종선(從船)을 타고 북쪽으로 갔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밤을 새우고 13일 미명(未明)에 돌아왔는데 같이 간 사람은 7인이고 책자 4권을 주었으나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그렇다면 문정관은 누구인가? 순조 32년 7월 21일자 자문에 보면, “역학(譯學) 오계순(吳繼淳)을 차송하고 본 지방관 홍주 목사 이민회와 수군 우후 김영수로 하여금 배가 정박한 곳으로 달려가서 합동으로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라는 말에서 언급된 홍주목사 이민회, 수군우후 김영수 그리고 역학 오계순이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로드 애머스트호를 합동으로 문정한 관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정관에는 “공충수사(公忠水使) 이재형(李載亨)도 포함되는데, 고대도 현장을 방문한 고관으로 이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수군 우후 김영수(정 4품)의 직속 상관이었다. 린지 책에 방문자로 처음 소개된 “kin”이라는 사람(귀츨라프는 “Kim”이라 표기)이 바로 이재형이다. 그는 자신을 소개 하길 3급 관리이며, 자신의 지위가 “tseang-kean”이라 하였는데,⁵⁶ 모리슨의 중국 어-영어사전 (마카오: 1819)⁵⁷에 나오는 발음을 참고해 보면, “장군”이란 말임을 알 수 있다. 귀츨라프는 그가 “Tsee-che-to 지역(district)”에 주둔하는 장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⁵⁸ 실제로 그는 충청 수영에 보직된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정3품)이었다. 임기는 2년이였다.⁵⁹

귀츨라프 일행이 간월도와 주사창 방문 이 후에 그 곳의 방문에 대한 고대도 문정관들이 한 질문, 즉 ‘언제 출항했는지’와 ‘어떤 종류의 배를 타고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등을 질의 하던 중에, ‘몇 날, 몇 시에 고대도로 돌아왔는지(何日時還到古代島)’를 함께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귀츨라프 일행이 주사창 방문 후 돌아온 곳이 고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탐사에 대해 귀츨라프 일행은 조선측 기록에 보면, 8월 7일 (음력 7월 12일)에 출발하여, 다음 날인 8월 8일(음력 7월 13일) 묘시(卯時: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에 돌아 왔다. 이는 린지의 기록, 즉 “이튿날 아침 6시에 모선으로 귀환했다”라는 기록과도 부합된다.

⁵⁶ H. Lindsay, *Report*, 237.

⁵⁷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KEY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 Vol. 1.*,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19).881.

⁵⁸ C. Gutzlaff, *Journal*, 340, 7월 30일자 기록의 “Tsee-che-to district”는 발음상 일단 공충도나 충청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도 번역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공충수사의 관할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추측하면 절도사 관할 지역지역임으로 그 장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정확상 충청도 지역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만약 단어의 배열이 Tsee-to-che이라면, 절도사라고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절도사(관할)지역에 주둔하는 김이라 이름하는 장군”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⁵⁹ 황의호 등, 『충청수영』, (보령: 보령문화원, 2018), 260.

이 자료를 통해 귀츨라프일행의 1박 2일 태안의 주사창리 방문은 적어도 8월 8일까지는 ‘모선 로드 애머스트호가 “고대도 안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선은 고대도에 머물러 있고, 귀츨라프 일행이 서산 간월도 앞바다에서 태안 주사창을 향해 타고 온 배는 공충감사 홍희근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이 배는 작은 배 한 척(小艇一隻)이며, 이양선의 종선(異樣從船)이었다.

항해 책임자 린지의 글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급수선인 긴 보트(long-boat)를 사용하여 하여 탐사했다고 한다. 특히 천수만과 내륙 창리까지 방문하여 전도책자를 전달할 때에도 귀츨라프를 포함한 일행 급수선 위에서 밤을 세고 이튿날 모선으로 복귀할 정도로 이 종선은 지역탐사에 유용하게 쓰였다.⁶⁰ 이러한 귀츨라프 일행의 탐사방법을 보았을 때, 굳이 지역의 탐사를 위해 모선을 다른 항구인 원산도 개갱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었다.⁶¹

이 이양선 사건으로 “고대도 문정관”들이 받은 죄의 책임은 가혹하였다. 로드 애머스트호가 떠난 후 비국(備局, 비변사)에서 청원하기를 “공충수사(公忠水使) 이재형(李載亨), 우후(虞候) 김영수(金瑩綬), 지방관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민회(李敏會)가 문정할 때에 거행이 지연되고 처리가 전착(顛錯)된 죄”를 물어 “과직의 율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순조대왕이 모두 허락하였다. 그 결과 공충수사 이재형은 파직(罷職), 홍주목사 이민회, 수군우후 김영수는 파출(罷黜)되어 나처(拿處)의금부로 압송)되었고, 공충감사 홍희근은 중추(重推: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힘)를 당하였다.⁶² 공충수사 이재형은 1832년 2월에 부임했고 그가 로드 애머스트호 사건으로 파직된 다음 그의 후임은 이식(李栻)이란 인물이었다.⁶³

III. “Gan-keang”이란 표기문제

앞서 조선 문헌에서 정확하고도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고대도 안항”이 아니라 원산도 개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교롭게도 귀츨라프와 린지가 그들

⁶⁰ H. Lindsay, *Report*, 244.

⁶¹ 1832년 8월 10일에 귀츨라프일행이 Gan-keang 주위의 “가장 큰 섬의 산들”에 대한 탐사기록 있다. 귀츨라프는 이 섬을 안면도와 구별하고 있다. 안면도는 귀츨라프에 의해 8월 7일 “북쪽의 어느 섬” 또는 인공수로가 있는 곳으로 파악한 곳이다. 그러므로 8월 10일에 탐사한 섬은 8월 7일에 탐사한 섬, 즉 안면도와는 분명 다른 섬이다. 그렇다면 “정박한 곳에서 가까운 가장 큰 섬”은 원산도 밖에 없다. 또한 Gan-keang(“고대도 안항”)의 가까운 섬이라 했으니, 그러므로 Gan-keang이 원산도 일 수는 없다. (C. Gutzlaff, *Journal*, 351).

⁶²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⁶³ 황의호 등, 『충청수영』, 265.

이 도착한 안전한 항구를 “Gan-keang”이라 표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발음을 가졌다는 개갱이라는 촌락이 원산도에 있다 하여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개갱은 귀츨라프의 영문 항해기 『The Journal of Three Voyages』(1834)에 나타나는 “Gan-keang”과 발음상 다를 뿐 아니라, 귀츨라프의 독문 항해기의 “Gan-kiang”와는 더 더욱 상이하다. 그렇다면 “Gan-keang”은 어디인가?

1. “Gan-keang”은 “a safe anchorage (안전한 항구)”이다.

영문 “Gan-keang”과 독문 “Gan-kiang”은 성격상 귀츨라프의 영문 항해기 “a safe anchorage”⁶⁴로, 독문 항해기에는 “ein sicherter Ankerplatz”⁶⁵, 즉 “안전한 항구”, 안항(安港)이다. 이는 조선인들이 귀츨라프 일행에게 이끌 항구를 소개할 때 거론된 항구의 설명이기도 하다. “Gan-keang”은 귀츨라프의 『The Journal of Three Voyages (1834)』에 총 4번 언급된 정박지명이다.⁶⁶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해 책임자 린지도 그의 책에서 “Gan-keang”을⁶⁷ 언급했다. 이 항구를 린지는 “안전한 항구”라는 뜻으로, 조선인들에게 필담으로 알게 된 어떤 표현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⁶⁸

“원산도 개갱 정박설”의 주장에 의하면, ‘귀츨라프가 탄 로드 애머스트호가 고대도에 잠시 정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대도에 내리지 않았고, 다음 날 원산도 개갱으로 바로 이동했다’라고 주장하니, 그들이 주장하는 “Gan-keang”은 원산도 개갱이다. 그러나 우선 개갱의 뜻에 “a safe anchorage”의 뜻을 적어도 표기상에는 내포하고 있지 않다.

2. “Gan-keang”은 “고대도 안항”이다.

“Gan-keang”에 18일간 머물렀다. 이곳을 귀츨라프의 책과 린지의 책에는 일관되게 “Gan-keang”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귀츨라프에 의하면, 조선의 “정식사절 (an official messenger)”의 해서 초대받은 곳은 “Gan Keang harbour”였다.⁶⁹ 조선 사람들은 귀츨라프 일행이 그곳에 가면 고관을 만나 무역 상담도 할 수 있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⁶⁴ C. Gutzlaff, *Journal*, 329.

⁶⁵ K. Gutzlaff, *Aufenthalt*, 249.

⁶⁶ C. Gutzlaff, *Journal*, 329; 330; 354; 355.

⁶⁷ H. Lindsay, *Report*, 252.

⁶⁸ H. Lindsay, *Report*, 222; 223; 226.

⁶⁹ “We were invited by an official messenger to come to Gan Keang harbour which is not very far from the capital. (H. Lindsay, *Report*, 294. 귀츨라프가 쓴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인들이 말한 “Gan-keang”이 어느 장소인가라는 점이다. 귀츨라프는 이 “안전한 항구”에 대해 조선인들로부터 어떤 말을 보고 들은 것일까? 귀츨라프의 경우에는 조선인과의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몽금포 앞바다의 조선인들과의 접촉에서 보이듯이, 그는 직접 한문을 통한 필담으로 소통을 시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Gan-keang”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 쪽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때, 조선인이 한문으로 쓰고 발음한 것을 귀츨라프가 영문과 독문으로 옮긴 것이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표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선인들이 이 항구의 이름을 한자로 썼다면, ‘귀츨라프가 이 한자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Gan-keang”이라는 표기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애머스트호에 동승한 항해책임자인 상무관 린지도 도착한 항구를 “Gan-keang”이라 기록했다.⁷⁰ 7월 24일 찾아온 조선사람 중 한자로 된 책을 빠르고 유창하게 그들의 고유한 발음으로 읽어 내렸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⁷¹ “Gan-keang”이라는 표현을 귀츨라프나 린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쓸리 만무하다.

이미 필자의 줄고와 줄저를 통해 “고대도 안항”을 “Gan-keang”이란 발음이 당시 쇄국정책을 실행하던 시대 입을 감안하여, 그곳의 정식 지명을 숨기기 위해 유사한 다른 단어로 설명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바가 있다.⁷² 그 연구에서 두 가지 유력한 가능성을 논했는데 그 중 하나가 “Gan-keang”을 두 음절의 단어라고 전제하여, “Gan-keang”을 귀츨라프의 기록 습관에 따른 표기법을 가지고 관찰했다. 그의 기록 습관에 따른 다른 중요한 단서는 『The Journal of Three Voyages』(1834)에 나오는 일본어로 향한 항해에서 찾을 수 있다. 귀츨라프는 1832년 8월 17일 제주도 인근을 떠난 애머스트호가 8월 22일 류큐(琉球) 제도 오키나와 나하(那覇)항에 정박했다고 기록했는데, 그는 나하항을 “Napa-keang”,⁷³ 또는 “Na-pa-keang”,⁷⁴ 린지는 “Na-pa-kiang”⁷⁵ 으로 표기했다. 이때 “Na-pa”는 나하에 해당하고 “keang”은 항구를 뜻한다. 귀츨라프의 독문 『C. Gützlaff’s Missionars der evangelischen Kirche, dreijähriger Aufenthalt (1835)』에는 “Napa-Kiang”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⁷⁶ 그렇다면 2음절의 단어이다. 뒷자인 keang이 항구

⁷⁰ H. Lindsay, *Report*, 252.

⁷¹ K. Gützlaff, *Aufenthalt*, 249.

⁷² 여기에 Gan-keang의 표기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라. 오현기, 『굿모닝 귀츨라프』, (성남: 북코리아 2004), 191-197.

⁷³ C. Gützlaff, *Journal*, 1834, 357.

⁷⁴ East India Company,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Vol. XII(Nr.47-171)*, (London : Wm. H. Allen & Co., 1833), 171.

⁷⁵ H. Lindsay, *Report*, 259.

⁷⁶ K. Gützlaff, *Aufenthalt*, 258.

이면, 앞 자 인 Gan은 어떤 자인가?

“Gan-keang” 그 표기에 대한 그간 많은 추적연구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왜 귀츨라프와 린지가 “Gan-keang”이라 표기했을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지금까지 명쾌히 설명 되지 않았다. “Gan-keang”과 유사한 발음으로는 19세기 말 조선에 왔던 상인이자 항해가였던 독일인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 1832-1903)가 금강을 두고 “Kang-Kiang”이라 발음하였지만,⁷⁷ Gan-keang은 발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섬 내지 만에 있는 항구가 아님으로 맞지 않다. 김광수는 그의 『한국기독교전래사(韓國基督教傳來史)』란 저서에서 “Gan-keang”은 중국발음의 오기로 보았다.⁷⁸ “Gan-keang”에 대해 최완기는 “귀츨라프의 한반도 기행문”에서 “간경만”으로 번역하였고,⁷⁹ 리진호는 대동여지도(1861년)를 참고 할 때, 鏡(경)이란 섬이 고대도로 여겨짐으로, 이를 두고 “Gan-keang”이라 부른 것 아닌가 추측했다.⁸⁰ Malte Rhinow는 “Eine kurze koreanische Kirchengeschichte bis 1910”에서 “Gan-keang”에 대한 그 간의 여러 가설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귀츨라프가 “Gan-keang” 섬이라 부른 것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bleibt unerkläert)”라고 한다.⁸¹

이처럼 귀츨라프가 도착하여 “Gan-keang”이라 표기한 한국 최초의 본격적 선교지는 앞서 언급한 1차 사료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언급된 조선사료를 참고할 때 “안전한 항구는 당시 홍주목사 관할하의 고대도의 항구, 안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Gan-keang”의 표기 자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다 보니, 심지어 유사한 지명을 따라 “원산도 개개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대도 안항”이 “Gan-keang”이라는 표기법상에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 1834)의 저서에서 나온다. 모리슨은 귀츨라프를 로드 애머스트호에 통역관과 선의로 추천하여 조선선교를 가능케 했던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자, 중국학 학자였다. 그가 연구 하여 집필한 저서 중에 다음 두 영어-중국어사전(1819과 1822 발간)을 참고할 때, 그간의 “Gan-keang”의 발음과 의미를 명확히 정리 할 수 있다.

로버트 모리슨이 1819년 마카오에서 발간한 중-영어사전은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⁷⁷ Ernst Oppert,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N.Y : G.P. Putnam's Sons 1880), 311.

⁷⁸ 김광수, 『한국기독교전래사(韓國基督教傳來史)』, (서울: 기독교문사, 1974), 236.

⁷⁹ 최완기, “귀츨라프의 한반도 기행문(1832)”, 『신학과 신앙』, 제 2집 (1987), 98.

⁸⁰ 리진호, 『귀츨라프와 고대도- 최초로 내한한 선교사와 고대도』, (서울: 감리교 출판사, 1997), 57.

⁸¹ Malte Rhinow, *Eine kurze koreanische Kirchengeschichte bis 1910*, (Zürich: LIT Verl., 2013),115.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KEY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 Vol. 1.,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19인데, 이 책에는 “안(安)”자의 경우 Gan 또는 An으로 발음이 표기되어있다.⁸²

GAN, OR AN.—XLITH SYLLABLE.		
Manuscript Dictionary, Gan or Ngen. Canton Dialect, Oen.		
<p>干 Kan. 2828. <i>Tz</i> after <i>op-</i> <i>position</i> to; to seek some end.</p> <p>岼 2829. Name of a hill. Er- roneously used for 岸 Gan. A bank or shore.</p> <p>研 2830. [ʹ] Gan or Kan, Rocky appearance of a hill; clean stones, as those over which water passes rapidly; to rub stones; to rub silks with a stone. Tan gan 月 reddish stones or pebbles; Cinnabar.</p> <p>豻 2831. [ʹ] A species of wild dog or fox; according to others, its form is like a fox; its colour black, and in length it is seven or eight cubits; on its forehead is a horn, and it can destroy tigers and leopards. Applied figuratively for a country prison.</p> <p>預 2832. A large face; a broad forehead; a bald head.</p>	<p>岸 2833. [ʹ] A high shore; the bank of a river or canal; a high bank and deep water. Steps up to a palace; figuratively, a person of eminent talents and virtue; nearly the extreme limit of a road; the end of a journey; to exhibit the forehead, or a high forehead. The name of a person, a country prison. Shang gan 上 or 登 Ting gan. To ascend the bank; to go on shore; to land; to disembark. Kwei gan 魁 a man personable and valorous, eminent for strength and honorable feeling. Gan shan 上 on the bank.</p> <p>安 2834. [-] Skillness; repose; rest; tranquillity. To rest satisfied in; to remain in the sphere allotted one. Fixed; settled; safe. How? what? An in- terrogative particle. Name of a dis- trict. A surname. Chang gan 長 long perpetual repose; denotes the</p>	<p>region where the court is situated. Ping gan 平 tranquil and com- fortable; at peace. Gan is chung 樂中 in the midst of ease and pleasure. Gan fun 分 to rest satisfied in one's own sphere or department. Gan seih hsiang 息香 Benjamin, or Benzoin. Gan heang 享 to enjoy tranquillity; to rest in enjoyment of. Gan hwuy 徽 a southern division of the province of Keang-nan, which is now established into a distinct province. Gan hēt 歇 to rest as from labour; to sleep; to repose. Gan keu 居 to dwell at ease and quiet. Gan lo kung 樂公 a term of contempt for a mere man of pleasure. Gan-nan kwō 南國 Cochin-china. Gan jin 人 title of the wives of officers of the sixth rank.</p>

“항(港)”자의 경우는 keang으로 발음이 표기되어 있다.⁸³

⁸²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KEY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 Vol. 1.,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19), 369.

⁸³ R.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1819, 396.

396 KEANG	KEANG	KEANG
<p>Keang kou 古 古 to speak or discourse of old times; which is done in the streets and market places in China by an inferior class of street orators called <i>Keangkw</i> Sün-säng 古生先.</p> <p>Keang to leou 妥了 妥了 to have agreed upon; or made a final arrangement.</p> <p>Keang ming pih leou 明白了 明白了 fully explained; clearly stated.</p> <p>Keang shw-s 說 說 to speak or converse about.</p> <p>Keang ching tze 政事 政事 to speak or discourse of politics.</p> <p>Keang shing yu 聖諭 聖諭 to preach the Sacred Commands. See Shing.</p>	<p>3546. A strong bow; strong; firm; physically or morally; robust; intrepid; powerful; affluent; violent; boisterous. To compel; to force together. Forms a part of proper names. Used in much the same sense as 強 <i>Keang</i>.</p> <p>Keang pson 暴 暴 strong and boisterous.</p> <p>Keang j5 弱 弱 strong and weak.</p> <p>Kaou keang 高 高 a crafty violent manner.</p> <p>Keang teang 搶 搶 to take by force; to rob and plunder.</p> <p>5547. Appearance of holding up or supporting.</p> <p>5548. [-] Name of a wood: A bar or beam; the handle of a hoe. A certain bar by the side of a carriage. Name of a hill.</p> <p>Keang keang 强 强 strong; abundant.</p> <p>5549. [-] Remaining uncorrupted after death.</p> <p>Keang taan 蠶 蠶 the white re- Taan pih 蠶 絲 蠶 silks of the silk worm after its death.</p> <p>5550. A boundary or limit, such as divides fields.</p> <p>5551. [-] From to limit and silk, or leather. A bridle; the silk cord or leather strap with which a horse is restrained or bridled. Ma- keang 馬 馬 a horse's bridle.</p>	<p>5552. [-] Small stones.</p> <p>5553. [-] Ginger. Tang keang 糖 糖 preserved ginger. Keang or Säng keang 生 生 ginger.</p> <p>5554. [-] A boundary; a limit; to draw a limit; to fix a boundary. Name of an office. Keang che 之 之 bound or limit it.</p> <p>Keang keao 界 界 } Keang yih 域 域 } the boundary as of a district or country.</p> <p>Woo keang 无 无 } illimitable; in- Woo keang 無 無 } finite, either in reference to space or time.</p> <p>5555. [-] From water and lane. Water diverging into streams like streets or lanes; a passage for ships; streams running into, or from the sea; arms of the sea. Read Hung. Lakes passing into each other.</p> <p>Keang kow 口 口 the mouth of a passage; a port.</p> <p>Keang ke5 脚 脚 the foot of a stream or passage of water; a port or harbour; the ports of India are so called at Canton; and India itself.</p> <p>Keang ke5 chuen 脚船 脚船 English ships from India, are so called at Canton; country ships.</p>
<p>5541. To plough; to cultivate the soil.</p> <p>5542. Clear; harmonious; straight forward.</p> <p>5543. [-] From two fields and three lines. A line of partition; a boundary; a limit. To remain without corrupting after death.</p> <p>5544. To lie down; stretch out; prostrate.</p> <p>5545. The same as 疆 <i>Keang</i>. A limit or boundary.</p>	<p>5541. To plough; to cultivate the soil.</p> <p>5542. Clear; harmonious; straight forward.</p> <p>5543. [-] From two fields and three lines. A line of partition; a boundary; a limit. To remain without corrupting after death.</p> <p>5544. To lie down; stretch out; prostrate.</p> <p>5545. The same as 疆 <i>Keang</i>. A limit or boundary.</p>	<p>5541. To plough; to cultivate the soil.</p> <p>5542. Clear; harmonious; straight forward.</p> <p>5543. [-] From two fields and three lines. A line of partition; a boundary; a limit. To remain without corrupting after death.</p> <p>5544. To lie down; stretch out; prostrate.</p> <p>5545. The same as 疆 <i>Keang</i>. A limit or boundary.</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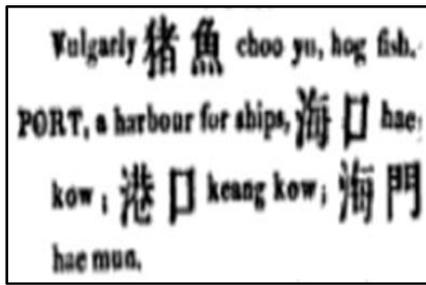
TRA
<p>He went into a trance, 他人定 去了 ta jäh ting keu leou. TRANQUIL, 安 gan, 寧 ning, 平 安 ping gan, 安靖 gan ting; or 安靜 gan ting.</p>

로버트 모리슨이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중-영사전은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radical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I*,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22)인데, 이 책에도 역시 “安”자가 Gan으로 발음되어 있고,⁸⁴ “港”자의 경우 keang으

로 발음되어 있다.⁸⁵

⁸⁴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radical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I*,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22), 440.

⁸⁵ R. Morrison, 1822, 329.



이 사전에 나타난 알파벳 표기방법과 의미에 따르면, “Gan-keang”은 곧 안항(安港)이다. 안항이라 언급된 곳은 조선의 사료를 참고 할 때 그러한 지명은 “고대도 안항” 뿐 이다. 이로써 더 이상의 “Gan-keang”이 “고대도 안항”인지 “원산도 개갱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해 지는 것이다.

3. “Gan-keang”은 “Majoribanks Harbour”이다.

“Gan-keang”은 귀츨라프의 탐사팀이 다른 이름으로 “Majoribanks Harbour”로 명명했다. 런지의 책에는 처음에는 천수만을 “Majoribanks Harbour”로 명명했으나,⁸⁶ 이 후 천수만을 “Shaol harbor”로 재 명명했다.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는 자리에 있던 스코틀랜드 수계 지리학자 홀스버그(James Horsburgh, 1762~1836)는 “Gan-keang”을 “Majoribanks Harbour”와 혼용하고 있으며, 이 항구는 수심을 재어보니 대부분 8-12 패덤⁸⁷이었다고 기록한다.⁸⁸ 그 후 1858년 런던에서 당시 영국정부가 발간한 『중국 안내집(China Pilot)』도 “Gan-keang”과 “Majoribanks Harbour”를 동일시 한다.⁸⁹ 영국정부가 발간한 『중국 안내집(China Pilot)』은 1858년에 이어 1861년 (3판)에서도 여전히 “Gan-keang”과 “Majoribanks Harbour”를 동일시 한다. 이 책의 각주에는 귀츨라프가 “Gan-keang”을 “Majoribanks Harbour”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⁰

이 책의 조선 지역의 위치를 정리한 도표는 수계 지리학자 홀스버그가 제시한 근거와 프랑스 군함 비르지니(Virginie)호 계령 제독 (Rear admiral Guérin)의 지휘 아래 1856년에 작성한 해도를 참고하고 있다. 여기에 나온 기록으로는 Gan-keang인 Marjoribanks harbour는

⁸⁶ H. Lindsay, Report, 240.

⁸⁷ 패덤(fathoms)은 수심측정 단위이다. 1패덤은 1.8 미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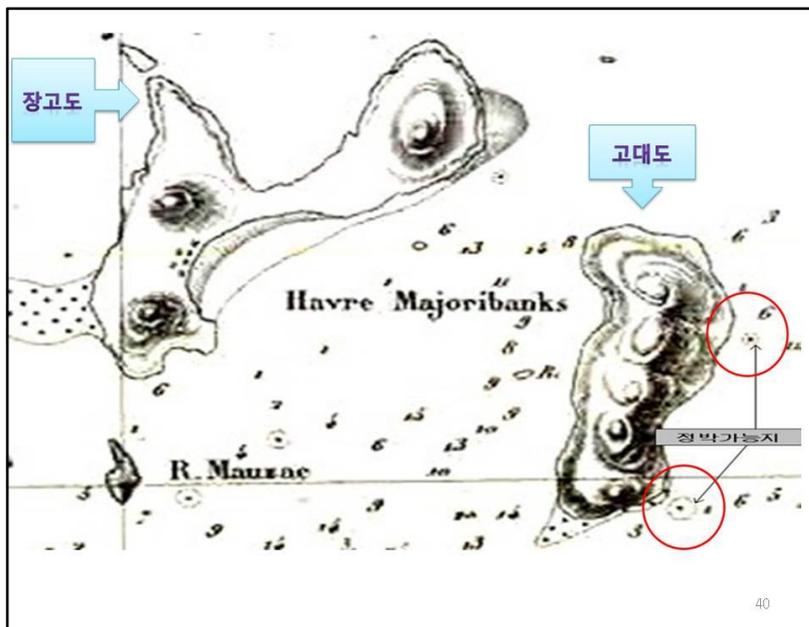
⁸⁸ James Horsburgh, *The India directory, or, directions for sailing to and from the East Indies, China, Australia, Cape of Good Hope, Brazil and the Interjacent Ports: Compiled Chiefly from Original Journals of the Company's Ships*, Vol. 2. 4. ed.,(London : Allen, 1836), 418.

⁸⁹ John W. King, *The China Pilot. The coasts of China and Tartary, from Canton River to the Sea of Okhotsk; with the adjacent islands.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2.ed. (London : Hydrographic Office, 1858), 217.

⁹⁰ John W. King, *The China pilot : <the coast of China, Korea, and Tartary; the Sea of Japan, Gulfs of Tartary and Amur, and Sea of Okhotsk>*, 3 ed., (London : Hydrographic Office), 1861, 255.

36°25'00.0"N 126°25'00.0"E 이며,⁹¹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Gan-keang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초까지 36°23'20.0"N 126°28'30.0"E 라 표기했다.⁹² 당시 위도와 경도 기록이 정밀하지 않더라도, 이 좌표는 당시 해도의 좌표를 참고할 때 둘 다 고대도와 그 인근을 가르친다.

비르지니 호의 계령 제독의 명에 따라 프랑스 해군 소위 몽따루가 1857년에 작성한 원산도 안면도 인근 해도에는 “Majoribanks Harbour”가 고대도와 장고도에 사이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항구 표시이기 보다는 고대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 고대도에 사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대도와 장고도 사이에 항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대도편에는 물살이 세다 보니 배를 댈 항구도 없으며, 정박하기가 불가능 하다. 이 해도에서 “Majoribanks Harbour”가 고대도 인근에 표시됨으로 적어도 고대도설을 강화하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비르지니 호의 계령 제독의 명에 따라 프랑스 해군 소위 몽따루가 1857년에 작성한 해도)

몽따루가 작성한 해도를 보자면, 고대도에 정박 가능한 두 곳을 정확히 표기해 두었다.⁹³

⁹¹ John W. King, *The China pilot*, 1861, 425.

⁹² Philipp Franz von Siebold, *Geschichte der Entdeckungen im Seegebiete von Japan, nebst Erklärung des Atlas von Land- und See-Karten vom japanischen Reiche*.(Leyden: bei dem Verfasser, 1852), 47.

⁹³ ‘Mouillages de la Cote Ouest de Coree leves en 1857 par Mr. Montaru Enseigne de Visseau (1857년) 한국 서해안에 정박 후 해군 중위 몽따루(Mr. Montaru)에 의해 측량’ 제목이 붙어 있고, ‘Havre Majoribanks et entree du Shoal Gulf’ 부제목이 붙어있다.

연원직지(燕輓直指)에는 ‘고대도(古代島) 앞 항구에 끌어다 정박시켰다’라 했으니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다.⁹⁴ 위쪽의 정박지는 현재도 고대도 항구로 사용되는 곳 근처이고, 고대도 주민들에 의하면, 아래 쪽 정박지는 옛 날 배들 피항했던 장소라 한다. 그곳은 고대도 남쪽 아래쪽에 위치한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곳 앞바다는 “닷 밭”이 좋아 무거운 큰 돌에 구멍을 내어 밧줄로 연결한 닻을 쓰던 조선시대에 정박하기에 알맞은 항구의 역할을 했다. 지금도 고대도에는 그 시대에 쓰던 같은 종류의 닻이 유물로 남아있다. 분명 두 곳 중 하나가 분명 고대도의 “안항” 정박지일 것이다. 조선의 지도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항로인 세곡선 해로에 가깝게 위치하고, 고대도 후양에 있고, 린지가 기록한 대로 “Gan-keang”이 큰 마을 가까운 곳에 있고,⁹⁵ 바람피할 수 있는 곳 (파도막이가 되는 자연적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지물)가 있는 곳이라 했다.⁹⁶ 아울러 섬에 로드 애머스트호를 바로 접안한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귀츨라프 일행을 태운 배가 닻을 내리자 말자, 섬으로 부터 많은 배들이 다가 왔다고 했다.⁹⁷ 또한 귀츨라프가 고대도를 방문 할 때 노를 젓는 급수선 또는 대형 보트 (long-boat)를 사용하여⁹⁸ 고대도로 간 것을 보았을 때, 해상에 정박지 임이 분명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고대도 남쪽 정박지가 “고대도 안항”이다.

로드 애머스트호가 고대도 남쪽 정박지(안항, “Gan-keang”)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는 1840년의 영국해군성 수로국(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 UK)에서 작성한 해도이다.⁹⁹

⁹⁴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輓直指)』, 제1권, 출강록(出疆錄), 임진년(1832, 순조 32)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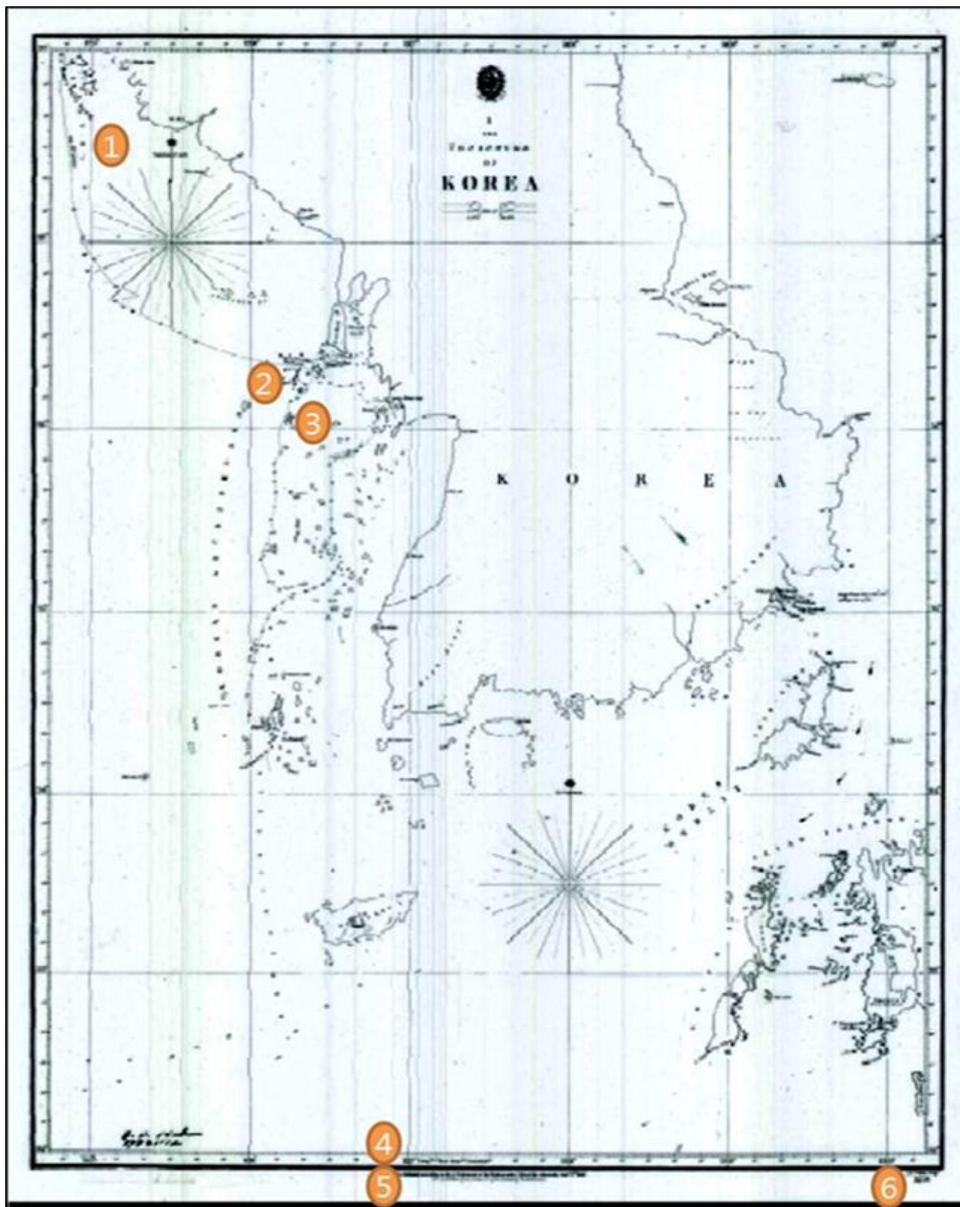
⁹⁵ H. Lindsay, *Report*, 224.

⁹⁶ C. Gutzlaff, *Journal*, 330.

⁹⁷ H. Lindsay, *Report*, 224.

⁹⁸ H. Lindsay, *Report*, 227.

⁹⁹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 “The peninsular of Korea” (London: R .B. Bate, Jan. 27. 1840), Librarie Loeb-Larocque(ed), *The European Mapping of Korea*, (Librarie Loeb-Larocque: Paris 2009),59;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oceangrid/koofs/webzine/data/HAE/3/files/download/old.pdf>. Chart shewing the track of the Lord Amherst among the outer islands of the Korean Archipelago by Capt. T. Rees 1832” drawn on a scale of 3 inches to a degree 1 f. 4 in. x 1 f. 2 in. (Add 16,365. X.)” British museum dept. of MSS, *Catalogue of the Manuscript Maps Charts and Plans and of the topographical Drawings in the British Museum*, Vol. III (London: Order of the Trustees 1861). 343.



이 지도상에 특별한 점은 로드 애머스트호의 1832년 항로가 “애머스트호 1832년(Amherst 1832)”라는 표기와 항로를 의미하는 점선이 함께 사용되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애머스트호의 선장 토마스 리스(Thomas Rees)가 1832년에 서해안을 탐사했을 시에 작성한 해도가 바탕이 되었다.¹⁰⁰ 지볼트에 의하면, 리스의 해도는 영국해군성 수로국의 1840년 작성한 “한반도(The Peninsula of Korea)”라는 이름의 지도는 No. 1258로 지정되었다.¹⁰¹ 이 해도에도 “Gan-keang”을 “Majoribanks Harbour”로 표시하였으며, 애머스트호의 항로를 표시하는

¹⁰⁰ 리스 선장은 1832년 서해안 항해시에 해도를 그렸다(H. Lindsay, *Report*, 259) 이것이 영국 해군성 수로국의 한반도 지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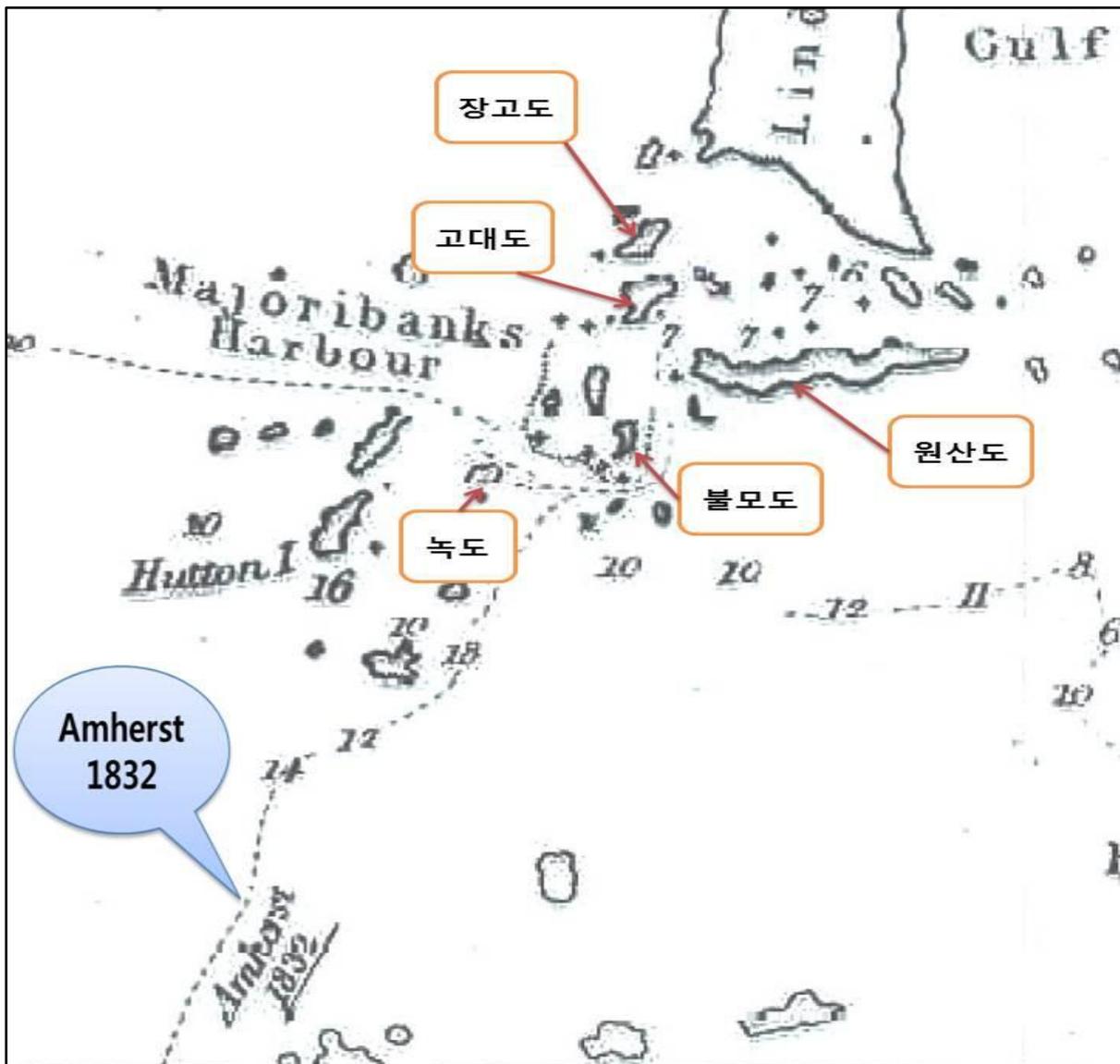
¹⁰¹ Philipp Franz von Siebold, *Geschichte*, 47.

점선은 린지가 기록한대로 Hutton섬(외연도)이 자리한 군도 사이를 지나 녹도를 지나 동북쪽으로 불모도(동소도)를 지나 고대도 끝, 고대도 “안향”에 도착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¹⁰² 이 지도를 지정된 번호에 따라 확대해 보면,

① “Amherst 1832년 7월” 이라고 명시하여 장산부터 내려오는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로를 점선으로 표기 했다.



② 고대도 인근 로드 애머스트호의 확대한 항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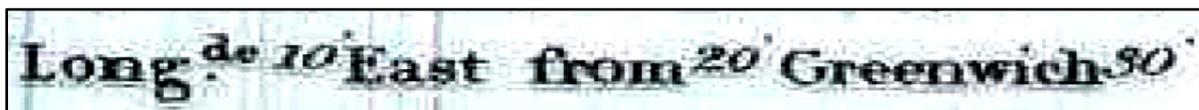


¹⁰²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 “The peninsula of Korea”,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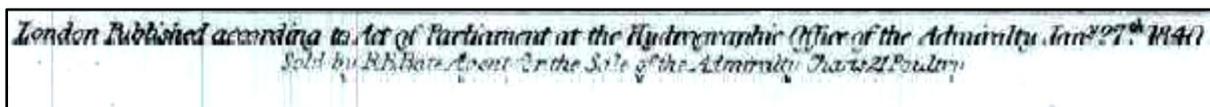
③ 1832년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로가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④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경도임을 기록하고 있다.



⑤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가 1840년 1월 27일에 R .B. Bate Agent에 의해 London에서 발행되어졌음을 명시하고 있다.



⑥ 지볼트가 언급한 대로 지도의 고유번호 1258 이 명시되어 있다.¹⁰³



이 영국 해도는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로에 원산도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 해도의 애머스트호 진행방향을 보면, 외연도 방향에서 와서 녹도, 불모도를 거쳐 동북쪽으로 올라갔다가¹⁰⁴ 고대도 끝 안항에 정박하고 18일이 지난 후 서남쪽으로¹⁰⁵ 내려가 제주도를 향하여 남하했다는 기록에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이 해도는 애머스트호가 1832년 7월 25일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으며, 안항이 귀츨라프의 조선 선교 여행에 있어서 최장기간 정박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IV. 맺는 말

“Gan-keang”는 고대도 안항이다“. “원산도 개강 정박설”은 그 주장이 “Gan-keang”이 원산도 개강촌과 발음상 유사 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는 “Gan-keang”은 “고대도

¹⁰³ Philipp Franz von Siebold, *Geschichte*, 47.
¹⁰⁴ H. Lindsay, *Report*, 224.
¹⁰⁵ 『조선왕조실록』, 순조 32년(1832) 7월 21일(음력).

안항”임을 논증하기 위해 귀츨라프와 린지의 “Gan-keang”이라는 단어의 표기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발견된 사료를 고찰했다. 동시에 조선 및 서양의 문헌과 조선과 서양의 해도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분석과 대조했다.

무엇보다 본 고에서는 “Gan-keang”은 “원산도 개갱이 아니라 고대도 안항이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1819년과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Robert Morrison의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를 참고한 것이다. 이 사전들을 통하여 “Gan-keang”이 발음상과 의미가 “안항”이며, 조선왕조실록의 순조실록과 일성록에 언급된 고대도 안항이 이곳이다. 이를 명확히 함으로 그간 원산도 개갱설의 핵심이었던 “Gan-keang”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본고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1840년 영국해군성 수로국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에서 작성한 해도, “The peninsular of Korea” (London: R. B. Bate, Jan. 27. 1840)를 통해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로드 애머스트호의 1832년의 항로를 정확히 파악 할 수가 있다. 이로써 “Gan-keang”의 위치와 관련된 오해를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드 애머스트호에 동승한 귀츨라프는 “Gan-keang”으로 기록 한 “고대도 안항”을 기점으로 하여 인근 섬들과 육지까지 본격적인 기독교 복음을 전했으며, 고대도에서 순조대왕에게 한문으로 된 신구약합본성경을 진상했으며, 고대도의 주민들 중에 기독교 서적(Christliche Bücher)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 견본(Exemplare des chinesischen Neuen Testamentes)”을 고관과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¹⁰⁶ 1832년 7월 27일에는 “고대도 안항” 정박지에서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인 주기도문 번역이 이루어 졌고, 이는 단편적 이지만, 한글성경번역의 효시이다.¹⁰⁷ 이미 필자의 저서인 『굿모닝 귀츨라프』에서 논증했듯이,¹⁰⁸ 이곳 고대도 안항 정박지 선상에서 순조대왕에게 드릴 진상품을 포장했는데, 이 속에는 왕께 진상할 성경과 전도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귀츨라프가 “중국을 위한 호소(An appeal in behalf of China)”라는 글을 통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여러 진상품들과 함께 21권(volume)으로 된 성경 한 질과 전도서적 2세트를 선물에 포함시켰다.¹⁰⁹ 이 성경은

¹⁰⁶ K. Gützlaff, *Aufenthalt*, 251.

¹⁰⁷ H. Lindsay, *Report*, 239.

¹⁰⁸ 오현기, 『굿모닝 귀츨라프』, 153f.

¹⁰⁹ K. Gützlaff, “An appeal in behalf of China”,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Missionary Herald*, Vol. XXX,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34) 423.

다름 아닌 “신천성서(神天聖書: 載舊遺詔書兼新 遺詔書)”이다.¹¹⁰ 신천성서는 중국어로 된 최초의 신구약 완역 성경으로서, 귀츨라프의 선교적 동역자였던 로버트 모리슨이 1823년 말라카(Malacca)에서 출판한 21권(volum) 선장본이다.¹¹¹

귀츨라프는 또한 고대도에서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¹¹² 7월 31일에는 감기에 걸린 노인을 위해 60명분의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다. 이는 서양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인들에게 근대의술을 베푼 것이다. 8월 12일 “고대도 안향”에서 퇴거하여 8월 17일 제주도 근처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대도는 귀츨라프가 조선방문 일정의 절반 이상을 들며 머물며 본격적인 선교를 진행한 곳이며, 고대도는 근처 도서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였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도의 선교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고히 하여 고대도를 한국 최초의 정식 통상요구선이 정박한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일 뿐 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본격적 복음전래지로서의 위상을 재고하여, 자랑스러운 선교 역사를 보존하는 섬, 하나님 사랑하신 섬(God愛島)로서의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http://db.itkc.or.kr>).

김경선(金景善), 『연원직지(燕輶直指)』 제1권 출강록(出疆錄) 「영길리국표선기(英吉利國漂船記)」, 순조 32년 11월 25일(임진년, 1832), 고전종합DB([http:// db.itkc.or.kr/](http://db.itkc.or.kr/)).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일성록(日省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¹¹⁰ 『신천성서(神天聖書) : 재구유조서겸신유조서(載舊遺詔書兼新遺詔書)』, (Malacca: Anglo-Chinese College, 1823).

¹¹¹ Alexander Wylie & William Gamble,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 giving a list of their publications, and obituary notices of the deceased*, (Shangha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5f..

¹¹² 린지는 감자파종을 7월27일, 귀츨라프는 이 사건을 7월30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규장각한국학 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선종성황제실록(宣宗成皇帝實錄)』 卷之二百二十二 道光十二年 閏九月 二十九日,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586926&remap=gb>

『신천성서(神天聖書)』 : 재구유조서겸신유조서(載舊遺詔書兼新遺詔書), Malacca: Anglo-Chinese College, 1823.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읍지류』 충청도편,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통문관지(通文館志)』,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British museum dept. of MSS. *Catalogue of the Manuscript Maps Charts and Plans and of the topographical Drawings in the British Museum*, Vol. III (London: Order of the Trustees 1861.

East India Company.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Vol. XII(Nr.47-171)*, London : Wm. H. Allen & Co., 1833.

K. Gützlaff, "*An appeal in behalf of China*",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Missionary Herald*, Vol. XXX,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34.

_____. *The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2.ed., London : Frederick Westley and A. H. Davis 1834.

_____. *C. Gützlaff 's Missionars der evangelischen Kirche, dreijähriger Aufenthalt im Königreich Siam nebst einer kurzen Beschreibung seiner drei Reisen in den Seeprovinzen Chinas in den Jahren 1831~1833*, Basel : Felir schneider, 1835.

Horsburgh, James, *The India directory, or, directions for sailing to and from the East Indies, China, Australia, Cape of Good Hope, Brazil and the Interjacent Ports: Compiled Chiefly from Original Journals of the Company's Ships*, Vol. 2. 4. ed., London : Allen, 1836).

King, John William, *The China Pilot : The coasts of China and Tartary, from Canton River to the Sea of Okhotsk; with the adjacent islands.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2. ed., London : Hydrographic Office, 1858.

_____. *The China pilot : <the coast of China, Korea, and Tartary; the Sea of Japan, Gulfs of Tartary and Amur, and Sea of Okhotsk>*, 3 ed., (London : Hydrographic Office), 1861,

Lindsay, Hugh H. & Gutzlaff. *Report of Proceedings on a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2. ed., London : Fellowes, 1834.

Morrison, Robert.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KEY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 Vol. 1.,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19.

_____.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first containing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ccording to the radical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and part the third English and Chinese*, Part III, Macao: East India Company Press, 1822.

Oppert, Ernst.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N.Y : G.P. Putnam's Sons 1880.

Von Siebold, Philipp Franz. *Geschichte der Entdeckungen im Seegebiete von Japan, nebst Erklärung des Atlas von Land- und See-Karten vom japanischen Reiche*. (Leyden: bei dem Verfasser, 1852.

Wylie, Alexander & Gamble, William.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 giving a list of their publications, and obituary notices of the deceased*. Shangha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2. 2차문헌

김광수, 한국기독교전래사(韓國基督教傳來史), 서울: 기독교문사, 1974.

고동환. 『한국전근대교통사』, 들녘: 서울, 2015.

리진호, *귀츨라프와 고대도- 최초로 내한한 선교사와 고대도*, 서울: 감리교 출판사, 1997.

신호철, “귀츨라프 선교지 원산도에 관한 연구”,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49.

신호철. “귀츨라프의 7월 25일 고대도와 원산도 정박론 비교”

http://www.yanghwajin.co.kr/zboard/view.php?id=foru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9.

신호철. 『귀츨라프행진』 서울: 양화진선교회, 2009.

오현기, 『굿모닝 귀츨라프』, 성남: 북코리아, 2014.

전영진, “고대도 민속의 특징”, 한국국어교육학회 편, 「새 국어 교육」, Vol. 52 (1996), 331-355.

최완기, “귀츨라프의 한반도 기행문(1832)” 「신학과 신앙」, 제 2집 (1987), 92-109.

황의호 등, 『충청수영』, 보령: 보령문화원, 2018.

Rhinow, Malte. *Eine kurze koreanische Kirchengeschichte bis 1910*, Zürich: LIT Verl., 2013.

3. 지도 해도

『동국여도(東國輿圖)』, 삼남해방도(三南海防圖), (1800년-1822년 제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 “*The peninsular of Korea*”, London: R .B. Bate, Jan. 27. 1840, Librarie Loeb-Larocque(ed). *The European Mapping of Korea*, Librarie Loeb-Larocque: Paris 2009.

‘*Mouillages de la Cote Ouest de Coree leves en 1857 par Mr. Montaru Enseigne de Visseau Havre Majoribanks et entree du Shoal Gulf*’. (1857)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museum/VIEW.HTM>).